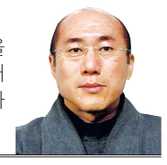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❶ 프롤로그

▶ **이일야 학장**은 보조사상연구원 연구위원과 사)부처님세상 이사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이홉 개의 산문이 열리다〉(13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와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2020세종도서), 〈불교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0가지〉,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등 다수가 있다.



詩와 불교적 성찰, 삶을 깨우는 낯선 만남



시라는 인문학의 바다에서 불교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만남이 이제 시작된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생각(生覺), 삶이 깨어나다

언제부턴가 불교 관련 수업을 할 때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시작을 한다. 내가 왜 불교를 믿는지,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가 지나치게 기복적이거나 때로는 왜곡된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신앙은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폐하게 만든다. 종교가 사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종교를 걱정하기도 한다. 심지어 '종교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근원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사유가 결여된 무조건적 믿음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할 것이다.

생각하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일상에서도 생각 없이 사는 경우가 많다. 대개는 어제와 같은 오늘, 업(業)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에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된다.

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생각이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과 조우할 때 일어난다고 하였다. 쉽게 말하면, 익숙한 환경이 아니라 낯선 상황에서 생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운전을 하다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 차가 고장 났나 하고 생각을 한다. 육식을 좋아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채식만 한다거나, 긴 머리를 고집하던 아내가 머리를 짧게 자르면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된다. 모두 낯선 상황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오늘의 우리 사회 역시 낯선 상황과 만나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계엄령 발동이라는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하였다. 시민들은 한밤중임에도 여의도로 달려와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민의의 전당 국회를 지켜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게 가장 놀라는 지점이기도 하다. 2024년 서울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보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해제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란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젊은이를 향한 기성세대의 편견과 선입견 또한 보기 좋게 깨졌다. 이제 더 이상 '요즘 애들은 이기적이고 생각 없이 산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젊은 10대와 20대들이 거리로 나와 주권자의 권리를 외치면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니 말이다. 낯설고 비극적인 상황을 오히려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생생한 교육 현장으로 바꾼 셈이다. 12·3 '서울의 밤'과 탄핵 정국이라는 낯선 상황은 우리 스스로를 일깨우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젊은 싯다르타를 출가와 성도로 이끈 것도 실은 낯선 상황과의 만남이었다. 그는 궁궐에서 항상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이라는 익숙함 속에 있었지만, 어느 날 몰래 성문 밖을 나가 낯선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늙고 병든 사람과 죽은 시체를 만나게 된 것이다.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도대체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아 출가를 결심한 싯다르타는 6년간의 고행 끝에 마침내 성도에 이른다. 잠자고 있던 그의 삶(生)이 깨어난(覺) 것이다. 낯선 만남은 한 사람을 위대한 성자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낯선 상황과의 만남을 시와 불교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필자는 동화나 대중가요, 위대한 철학자와 종교인이 남긴 마지막 말 등을 통해 불교, 혹은 철학적 의미를 성찰하는 글을 써왔다. 불교의 외연을 넓혀 철학과 문학 등 인문학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그 영역을 시로 확대하려 한다.

산문이 비교적 설명적이라면, 시는 압축적이다. 시인은 짧은 문장 속에 자신이 바라본 세계를 상징이나 비유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그려 넣는다. 때로는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장치를 동원하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시가 어렵다고 여기는 이유일 게다. 그래서 시어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면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잠들어있는 우리의 삶(生)이 깨어나면(覺) 얼마나 좋겠는가. 시는 인간에게 사유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재다.

'생각' 근원은 낯선 상황과 조우
의미 함축 詩, 사유 즐거움 불러
경전 · 법문 요약 '게송' 시와 유사
시 · 불교 연결점 찾는 성찰의 재미

시(詩)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말씀 언(言) 자와 절 사(寺) 자가 합쳐져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만 보면 시는 '절에서 하는 말'이 된다. 물론 시(詩)라는 글자는 중국에 불교가 전해지기 전부터 존재했으니,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시와 절은 묘하게 잘 어울린다. 깨침의 노래인 오도송(悟道頌)이나 입적의 노래인 열반송(涅槃頌) 모두 한 편의 시가 아니던가. 경전에도 수많은 게송(偈頌), 즉 시가 등장한다. 부처님은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고 그것을 한 편의 짧은 시로 요약해서 마치는 경우가 많다. 시와 불교의 인연이 보통은 아닌 셈이다.

시와 불교의 낯선 만남

지난 몇 년 동안 교계신문에 대중가요와 불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다. 가요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찾아내 오늘의 시선에서 해석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다보니 해당 노래를 부른 가수가 글을 읽고 연락을 해와 인연을 맺은 경우도 있다. '동행'을 부른 최성수 가수가 대표적이다. 가수는 어느 날 어머니를 위한 헌정곡을 만들었다며 영상 하나를 보내왔다.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에 곡을 붙여 만든 것이었다. 노래를 듣고 시를 음미하면서 낯선 상황이 가져다주는 성찰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감상해보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 발뒤꿈치 다 헤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엄마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노래한다.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앉아 대충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말한다. 자식은 그것이 그냥 넋두리 인줄만 알았는데, 평소와는 다른 낯선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엄마가 한밤중에 소리 죽여 우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다. 이를 지켜본 본 자식은 그제야 비로소 엄마라는 존재를 깨닫고 이런 성찰을 한다.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다. 시인의 지적처럼 "발뒤꿈치 다 헤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되는 엄마는 없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그런 엄마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되는 엄마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이다. 아니, 그런 엄마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다만 자식들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당연하게 여겼을 뿐이다. 그런데 혼자 울고 있는 엄마의 낯선 모습을 보고 비로소 자각하게 된다. 당신도 나처럼 똑같이 아프고 힘들다는 사실을. 낯선 상황과 만나 엄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잠자고 있던 삶(生)이 깨어나는(覺) 순간이다.

이처럼 낯선 상황과의 만남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가져다준다.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 글은 시와 불교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를 소개하고 그 속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인문학의 근본 물음인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의 시선에서 성찰하게 될 것이다. 물론 소개하는 시와 불교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본래 불교적 의미를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간극을 나름의 논리와 해석을 통해 좁히려 한다. 개인적으로 즐거운 사유의 시간이 될 것 같다.

과연 시와 불교가 만나면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나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시라는 인문학의 바다에 풍덩 빠져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고 불교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세계를 보려 한다. 아마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도 들을 것이다. 그래도 즐거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와 불교가 만나는 여행에 동참하면 좋겠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